

원희룡 장관, 한-아세안 협력 관계 공고화

- 6.9일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 의장 만나 협력 논의 -

-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아세안 기업자문위 5개 핵심가치 공유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9일(금) 오전, 서울에서 아르자드 라지드 (Arsjad Rasjid)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(ASEAN-BAC, Business Advisory Council) 의장 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,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의 비전 및 계획을 공유하고, 한-아세안, 한-인도네시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 - 이날 면담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방한(6.7.~6.9.)한 아르자드 라지드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-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「한-아세안 연대구상」처럼,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”라고 말하면서,
 -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에게 “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,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”라고 덧붙였다.
- 이에,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은 “지속 가능한 개발, 디지털 전환, 보건 회복, 식품 안전, 무역 및 투자 촉진 등 아세안 기업자문위 5대 핵심 분야 내 특히 인니 신수도 등 도시개발, 전기차 인프라, 보건 등 세부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”라고 말하면서,
 - “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양국 간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라고 화답하였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62개 기관·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대표단 파견('23.3.15.~3.18.) 이후 여러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한-아세안, 한-인니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, 앞으로도 한-아세안 교통협력포럼(7월, 서울·부산), 아세안 인프라 협력 포럼(9월, 인도네시아 예정)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2023. 6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